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바다와 미래를 꿈꾸는 인천의 하천



인터뷰 :

테마가 있는 자연형 하천살리기의 비전



I/D/I/소/식



인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포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현석)이 주최하고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인천...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세미나] 전국수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

Zoom INcheon



경서동 신공항 고속도로 연결도로 개통
(2000.10.2)
*1910년 10월 15일 -인천수도 개통식
*1933년 10월 8일...

도시동향



일본 기타큐슈시 무라사키강 마이다운 마이리버 정비사업
무라사키강(紫江)은 일본 기타큐슈시 고쿠라(小倉)의 중심시가지를 흐르는...

IDI연구



불법 주·정차 행태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주차질서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임에도 여러 가지...

인천지표



인천광역시 하천오염지표
수질오염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바다와 미래를 꿈꾸는 인천의 하천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강현 교수

바다와 미래를 꿈꾸는 인천의 하천

흔히 과거는 미래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연을 되살리는 노력에서는 인간의 손때가 많이 타지 않은 옛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복원의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 하천살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전국적에서 손꼽힐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개인의 노력이 하나의 목표로 향하여 모여질 때 비로소 하천복원의 열매가 알차고 빠르게 맺을 수 있다.

과거 인천의 하천.

즉 인간 교란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의 하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오래된 책, 그림, 사진이나 노인의 기억에서 희미한 하천의 과거 모습을 더듬거나, 현재 부분적으로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하천에서 모자이크를 맞추어 자연 하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인천에서 그나마 자연하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하천이 장수천이다. 장수천은 인천대공원 뒷산에서 발원하여 소래포구로 흘러드는 9km 길이의 짧은 하천이지만 한강과 같은 거대한 하천의 역동적인 하천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축소판이다. 장수천을 상류로부터 따라 걸어 내려가면 나무 그늘에 파묻힌 계류, 갯벌들이 허리를 싸고 도는 상류, 거친 모래에 달뿌리풀이 성기게 나타나는 중류, 가는 모래에 갈대가 무성한 하류, 그리고 붉은 칠면초가 덮는 갯골 하구까지 아주 짧은 거리에서 마치 태백산 발원지부터 한강 하구까지 한강을 대탐사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역시 인천의 자연하천 모습은 짧은 하천 구간에서 계류에서 갯벌까지 내닫는 급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인천의 하천.

즉 우리의 삶을 위하여 희생된 하천이 때로는 복개공사로 도시에서 그 모습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도시 곳곳에서 그 상처를 내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교란된 하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하천이 승기천이다. 승기천을 따라서 상류로 걷다보면 인천시 농수산물시장 앞의 복개 하수구에서 하천은 사라져 버린다. 승기천의 중상류는 이미 도시 지하에서 검은 하수만을 담은 홍물로 남아 있다. 그나마 하천의 모습을 드러낸 하류에서도 방조제로 바다와 단절되고 하천이 간척지에 인공수로의 형태로 남아 있다. 장수천과 같이 역동적인 변화를 하며 바다로부터 뿔뚝 뺀 승기천의 과거는 현재 하천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승기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한 조각마저 자연 지도로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을 위한 하천 기능인 친수라는 명목으로 하천의 또 다른 기능인 생태환경이 도시 하천에서는 힘을 잃고 있다.

미래 인천의 하천.

즉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인천에서 품어야 할 하천은 어떤 모습일까? 도시화된 지역에서 인간교란 이전의 완전한 자연하천을 실현할 수 있을까? 현재의 도시화 상황과 시민 요구에 모두 만족하는 하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우리만의 하천 모습은 있는가? 너와 내가 꿈꾸는 미래의 인천 하천은 얼마나 다른가?

이제 우리는 미래의 인천 하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뜻을 모아 공동된 하천 미래상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사실 인천 하천에서 바다로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던 자연의 시계는 그 숨을 멈춘 지 오래다. 하천의 자연을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시계 바늘을 과거 시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하여 모두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시계 바늘을 과거 시간으로 돌리는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즉 인천과 같은 고도로 개발된 도시에서 하천을 인간 교란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아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장난 자연의 시계를 수리하여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와 바다를 꿈꾸며 하천 스스로가 자기를 되살리는 하천의 시계를 작동시켜야 한다.

흔히 과거는 미래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연을 되살리는 노력에서는 인간의 손때가 많이 타지 않은 옛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복원의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 하천살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전국적에서 손꼽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테마가 있는 자연형 하천살리기의 비전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장 김진한 교수

테마가 있는 자연형 하천살리기의 비전



김진한

인천전문대학 환경학과 교수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장

Q 하천살리기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하천살리기추진단의 구성 배경을 설명해주신다면...

A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민·관 합동 파트너십에 의한 살아숨쉬는 하천살리기를 쟁점으로 시민 중심의 범시민 하천살리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관련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우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흘러나온 하폐수에 의해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개가 이루어지고, 복개천에서는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곧 오염하천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오염하천 주변 지역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유입 하수를 차집 하면서 점차 건천화되어 가고 있고, 복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접지역에 주거지역도 생기게 되고 공원이나 산책로가 생기면서부터 인천에서 중점적으로 시작한 것이 5개 하천살리기입니다. 5개 하천이라 하면 송기천, 장수천,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인데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서구에 상습수해지역이 일어남에 따라 홍수 예방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고, 나머지 네 개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연형, 즉 환경성을 강조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천이라고 하면 관 위주로 이루어져왔는데, 주민들이 과거의 역사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은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기획조정위원회와 네트워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위원회에는 주로 전문가 그룹과 관에 있는 분들이 있고, 네트워크위원회에는 주로 하천운동을 하는 민간단체(환경운동단체 등), 즉 민간의 의지를 하천살리기에 반영하되 전문가의 타당성 판단과 적절한 대안 제시, 적정의견 등을 반영한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한 하천살리기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Q 인천의 하천이 청계천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

A 청계천은 과거의 것을 복원하는 차원이었고 관 주도형이라 주민들이 바라보는 비전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방향에 의한 비전인데 반해 인천의 하천은 민간 주도형이라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우선 인천의 5개 하천에는 각 하천별로 테마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굴포천은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 송기천은 '도심지에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 장수천은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하천', 공촌천과 나진포천은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으로 그 지역하천의 경관과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테마를 결정해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의 테마이면서 결국에 그 하천이 갖는 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마을과 하천의 데마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주자대 주민일병회를 가졌으며 전문가 및 하천살리기추진단 등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시공으로 들어가고 하천의 데마에 부합하는지 주민의 요구나 편의성 차원에서 각 하수별 네트워크를 구성, 의견이 제시되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관주도로 이루어졌던 방식에 비해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예산이 초과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 즉 주민밀착형 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이 가진 문화공간으로, 커뮤니티 형성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하천 정화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하천살리기운동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A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발족한 지 5차년도에 접어드는데 기존의 4년은 설계·시공 단계(나진포천-두달 전 마무리, 굴포천-10월 23일 마무리, 장수천-2단계 설계, 승기천-내년 5월 마무리, 공촌천은 주변 사유지 매입 관계로 시간이 지연돼 예상보다 늦어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직 시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정화활동을 그대로 잘 해나가야겠으며 무엇보다 시공이 끝난 후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모니터링이 유지 관리에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이라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생태계 관련한 전문가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구축해 10여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민·관의 관심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되, 이미 개발된 방법이나 정부가 제안한 방법을 인천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반 마련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A 하천 마스터플랜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비전을 만드는 일들, 이렇다면 주거지역에 복개되지 않은 하천을 자연형 하천에 가까운, 오염하천으로 복개요구가 나타나지 않은 하천으로 정화하도록 관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단·중기적으로는 굴포천 상류지역에 도롱뇽, 가재 등이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복개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하수가 흘러들어와 현재,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군부대 옆을 지나서 백운 현대아울렛까지 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실정으로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류 부분에는 도롱뇽이나 가재가 살고 있는데 하류 부분은 단절된 셈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부평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복개된 부분을 청계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심포지움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이고,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진행된다면 다음단계로 기존 도로나 상류까지 수로를 내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하천 상류부터 걸어가면서 상황점검을 해보았는데 재정부분만 충족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천, 지류의 현황 파악과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Q 하천살리기운동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A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발족한 지 5차년도에 접어드는데 기존의 4년은 설계·시공 단계(나진포천-두달 전 마무리, 굴포천-10월 23일 마무리, 장수천-2단계 설계, 승기천-내년 5월 마무리, 공촌천은 주변 사유지 매입 관계로 시간이 지연돼 예상보다 늦어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직 시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정화활동을 그대로 잘 해나가야겠으며 무엇보다 시공이 끝난 후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모니터링이 유지 관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생태계 관련한 전문가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구축해 10여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민·관의 관심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되, 이미 개발된 방법이나 정부가 제안한 방법을 인천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반 마련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A 하천 마스터플랜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비전을 만드는 일들, 이렇다면 주거지역에 복개되지 않은 하천을 자연형에 가까운, 오염하천으로 복개요구가 나타나지 않은 하천으로 정화하도록 관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단, 중기적으로는 굴포천 상류지역에 도롱뇽, 가재 등이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복개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하수가 흘러들어와 현재,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군부대 옆을 지나서 백운 현대아울렛까지 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실정으로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류 부분에는 도롱뇽이나 가재가 살고 있는데 하류 부분은 단절된 셈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부평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복개된 부분을 청계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심포지움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이고,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진행된다면 다음단계로 기존 도로나 상류까지 수로를 내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하천 상류부터 걸어가면서 상황점검을 해보았는데 재정부분만 충족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천, 지류의 현황 파악과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Q 보다 질 높은 하천살리기를 위해 요구되는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면...

A 친수환경공간으로서 문화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가족과 어우러지는 곳으로 변모되는 활동의 장소가 되도록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기능을 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신데, 특별히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A 인천발전연구원이 맨파워를 더욱 보강해서 보다 폭넓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면서, 인천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연구기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또 응원하겠습니다.



굴포천

송기천

공촌천

장수천

나진포천

"인천의 하천은 테마별 하천만들기의 실현을 위해 거버넌스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하천이 가진 문화공간으로, 커뮤니티 형성공간으로 거듭날 것"FONT>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제7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개최 (10.1)



본 연구원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한·중·일 3개국 전문가 초청 국제학술행사 "제7회 韓·中·日 공동심포지엄"이 지난 1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도시의 에너지정책 및 자원제도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중·일 세 나라의 국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가 에너지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별강연] World Class Incheon 건설과 인천발전연구원의 역할 (10.13)



지난 13일 오전 11시, 본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청 김형걸 법률담당팀장으로부터 두바이의 2천명의 싱크탱크 브레인집단 및 아부다비 개발프로젝트 관련 특별강연을 듣고, 그랜드 마스터 플랜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자문기능 수행 등 본 연구원의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포럼 (10.2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현석)이 주최하고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인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포럼"이 지난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앞서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기업·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내외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 이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국제업무단지의 투자유치 및 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세미나]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향(10.16)

*[포럼] 강원도 물환경(하천)관리 방안(10.16) : 강원발전연구원 033-250-1351

*[세미나] 「한국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심포지움(11.11):경기개발연구원 031-250-3140

*[토론회] 람사르총회 개최기념 비무장지대 보전 위한 국제 컨퍼런스(10.23)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140

*[포럼] 진해신항발전 TF 1차 학술포럼(10.9) : 경남발전연구원 055-239-0123

*[콜로키움] 제138차 대경콜로키움 「에너지전략의 개척자:미국의 지역이 리더십을 발휘한다」 (10.9) : 대구경북연구원 053-770-5062

*[세미나] 한국금융산업의 국제화-과제와 전략 「부산의 특화 금융 허브 발전방향」 (10.13) : 부산발전연구원

*[세미나] 2008 울산학연구센터 세미나 개최 「1920~1930년대 울산의 모습-일제시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0.10) : 울산발전연구원 052-289-7227

*[세미나] 노무라종합연구소-전북발전연구원 국제공동세미나 「전북의 녹색성장의 방향과 과제」 (10.21) : 전북발전연구원 063-286-9234

*[심포지움] 충북개발연구원-山梨總合研究所 국제심포지움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과 과제」 (10.10) : 충북개발연구원 043-221-8101

10월의 인천 역사

커버스토리

시장연구

도시정보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1910년 10월 15일-인천수도 개통식

*1933년 10월 8일-인천개항 50주년 축전

*1963년 10월 26일-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1968년 10월 20일-인천-수원간 열차 폐지

*1973년 10월 6일-인천해운항만청사 착공

*1977년 10월 16일-인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어른 40원, 원거리 5원 추가

*1979년 10월 1일-인천시 인구 100만 돌파 1,043,744명

*1980년 10월 24일-송림동 일대에 해일

*1985년 10월 25일-인천시 새청사 완공

*1989년 10월 30일-담동성당 설립 100주년 경축 미사

*1995년 10월 7일-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1996년 10월 23일-백범 암살범 안두희 피살

*1997년 10월 29일-인천 LNG기지 1단계 준공

*1998년 10월 26일-인천지법 경기은행 파산선고

*1998년 10월 30일-프로야구 98한국시리즈 현대유니콘스 우승

*1999년 10월 19일-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착공

*1999년 10월 30일-인현동 호프집서 화재참사 중고생 55명 희생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손님 50여명이 사망한 대형참사. 불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 내부수리 공사장에서 처음 발생, 계단을 타고 불길이 번졌으며 35분만에 진화되었다. 이 건물은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유일한 출입동로인 계단의 너비가 1.2m 남짓으로 비좁아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라이브 호프집은 문제점으로 경찰에 적발돼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업소 소유주인 정성갑은 단속기관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이슈화된 바 있다.

*1999년 10월 6일-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인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터미널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식과 시승식을 갖고 낮 12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 계양구 굴현동에서 연수구 동춘동을 잇는 총연장 26.4km의 인천지하철 1호선은 모두 22곳의 역을 따라 전 코스를 달리는데 43분 정도가 걸린다. 인천지하철용 전동차는 차폭이 기존 경인전철보다 37cm 좁지만 자기고장진단, 객실온도 자동조절 등 첨단 기능을 갖췄고 궤도가 국내 최초로 저전동 구조를 채택했다.

*2000년 10월 27일-옛시민회관터 시민공원 준공식

*2000년 10월 2일-경서동 신공항 고속도로 연결도로 개통

고양 방화대교~인천국제공항간 40.2km를 연결하는 신공항 고속도로가 10월 21일 자정부터 개통되었다. 신공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방화대교에서 인천공항까지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장기적이고 지속적, 복합적 하천재생 성공사례

일본 기타큐슈시 무라사키강 마이타운 마이리버 정비사업

무라사키강(紫江)은 일본 기타큐슈시 고쿠라(小倉)의 중심시가지지를 흐르는 강으로, 일본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색을 띠는 강이라는 뜻이다. 과거 산업폐수 및 생활폐수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무라사키강은 일본 공해의 상징적인 강, 무라사키강으로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하천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고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현재는 고쿠라시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심볼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무라사키강의 재생은 1988년 건설성의 마이타운 마이리버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및 주변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1960년대 항만 수질오염



현재

마이리버 마이타운 정비사업은 도심의 홍수예방과 자연환경보존, 200만 도시권의 중핵도시로서의 걸맞는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도심기능의 충실, 무라사키강의 수변을 중심으로 경관의 정비를 통한 도심의 상징창출, 무라사키강의 역사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이중에서 무라사키강 물환경관과 무라사키강 주변의 정비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무라사키강 물환경관은 무라사키강의 생태계의 복원 관찰과 수환경을 배우는 환경체험학습의 장(체험형 학습시설)으로서 2002년에 완공된 것으로, 지하는 물환경관으로 사용하고 지상은 레스토랑과 카페, 전망데크로 사용하고 있다. 무라사키강 수환경에 관한 전시와 생물소개코너를 통해 물환경에 관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의 수질상황과 현재의 하천 내부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천관찰창을 만들어 놓았다.



과거와 현재의 수질을 비교



무라사키강의 실제 모습을 창을 통해 관찰 가능함



또한, 무라사키강 마이타운 마이리버 정비사업의 주목할 만한 것중의 하나는 강 주변의 경관정비를 통해 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도심부의 무라사키강을 횡단하는 10개의 교량을 정비·거설하였는데, 단순히 도로의 역할이



아니라 이를 도시의 심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바다, 불, 나무, 돌, 물새, 달, 태양, 철, 바람, 소리의 10가지 요소를 테마로 한 다리를 정비·건설하여 관광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오염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했던 무라사끼강 주변을 시민들에게 친근한 수변공간으로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무사가끼강 주변을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새롭게 창출시키기 위하여 문화·정보·오락·상업의 복합공간인 리버워크

기타큐슈를 2003년 4월에 준공하였다.

기타큐슈시의 무라사끼강 재생 성과는 하천 그 자체로의 환경 회복만이 아니라 이를 도시재생의 기회로서 활용하여 도시의 얼굴에 걸맞는 매력있는 도심공간을 창출하고자 주변지역과 일체화된 정비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이 아닌 20여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태양의 다리



정비된 수변공간



물환경관



리버워크 기타큐슈 전경

무라사끼강(紫江)은 일본 기타큐슈시 고쿠라(小倉의) 중심시가지를 흐르는 강으로, 일본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색을 띠는 강이라는 뜻이다. 과거 산업폐수 및 생활폐수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무라사끼강은 일본 공해의 상징적인 강, 무라사끼강으로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

불법 주·정차 행태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차질서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바로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사회 전체에 복합적인 영향으로 시민전체의 부담이 됨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불법주정차 특성 및 행태분석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불법주정차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음

□ 인천시민 불법주정차 특성 및 행태

인천시민의 불법주정차 특성 및 행태분석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장소별로 "재래시장 주변", "관광지 주변", "은행 주변", "주택가 주변", "아파트 단지 주변", "회사 주변" 등 6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방향별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불법 주정차 장소에 따른 주차행태 및 의식 차이를 분석함

<표1> 불법 주정차 장소에 따른 행태 및 의식 차이 분석

구 분	항 목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인 판단적 측면					
예) 이면도로에서 주차금지 표지가 없으면 주차해도 상관없다.	집단-간	44.050	8.810	2.513	.031
	집단-내	844.914	3.506		
	합계	888.964			
비용·시설적 측면					
예)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어떻게든 이용한다.	집단-간	54.748	10.950	3.467	.005
	집단-내	761.106	3.158		
	합계	815.854			
개인 편의의식 측면					
예) 주차하기가 편하거나 주차장을 찾기가 귀찮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집단-간	136.338	27.268	7.322	.000
	집단-내	897.508	3.724		
	합계	1033.846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					
예) 내 집 근처이므로 주차구획선이 없더라도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다.	집단-간	65.202	13.040	3.928	.002
	집단-내	800.012	3.320		
	합계	865.215			
사회적 의식 측면					
예) 누가 불법주차를 하려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집단-간	6.939	1.388	.499	.777
	집단-내	669.838	2.779		
	합계	676.777			
주차관리에 대한 인식 측면					
예)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칙금 인상과 같은 강력한 단속을 펴는 걸 밖에 없다.	집단-간	14.717	2.943	.811	.543
	집단-내	875.032	3.631		
	합계	889.749			

설문문항은 운전자들이 주차 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하였으며,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화함

분석결과 "개인 판단적 측면", "개인 편의의식 측면", "개인 피해의식 및 합리화 측면", "비용·시설적 측면"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회적 의식 측면"과 "주차관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그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 관념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법주정차 행태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장소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관점(개인의 불법 주정차 장소)에 따라서 개인의 주차행태를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신의 법 준수수준은 다소 과대평가하면서 타인의 준수수준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주차위반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시설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내세움으로써 위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인천광역시 불법주정차 행태개선을 위한 주차정책방안

첫째, 주차문화 의식 확립을 위해서 주차체험관건립, 반복 단속되는 차주에 대한 교육, 운전면허취득에 따른 사전교육, 학교교육에 의한 주차문화의식 교육, 주유소(정유사)와 제휴한 주차문화 의식개선홍보, 대중매체를 통한 불법주정차의 폐해 알리기 등의 교육 및 홍보방안이 요구됨

둘째, 주차시설의 정비,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불법주차단속전담 주차관리공단설립, 행정경찰력 부여 및 과태료제납자 제재방안수립 등의 정책 및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셋째, 제한된 단속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에 있어 단속관리지역의 설정, 주차단속지표설정, 주차단속운영기준, 단속인력 및 장비 운영방안 등 인천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

<그림1> 단속장비의 효율화 : 이동식 CCTV(자동형)를 탑재한 단속차량(계양구)



주차질서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바로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많은 문제는 사회 전체에 복합적인 영향으로 시민전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차 특성 및 행태분석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불법주정차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2.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

3.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여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결과

고위직(3급 이상)에게 요구되는 역량 항목은 ①목표 설정 ②자원배분 우선순위 결정 ③시정지표와 시정방향에 대한 이해 ④위기 및 갈등 관리능력 순으로 나타났음

인천시 4-5급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역량은 ①문제해결력 ②추진력 ③조직원 관리 ④전략적 기획력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 수준과의 격차가 가장 큰 역량 요소는 ①전략적 기획력, ②조직원 관리, ③갈등관리 ④문제해결력 순으로 나타났음

6-7급(행정직)의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요소 진단 결과에 따르면, ①실무운영능력 ②문제해결력과 추진력 ③자기관리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반면, 현재 교육훈련이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는 ①자기관리 ②기획력 ③프리젠테이션 능력으로 나타났음

6-7급(기술직) 공무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역량 요소는 ①자기관리와 실무운영능력 ②대인관계 ③문제해결력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 교육훈련이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는 ①자기관리 ②프리젠테이션 ③기획력 순으로 나타났음

8급 이하(행정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요소로서는 ①실무운영능력과 ②문제해결력이 제기되었음. 반면, 현재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역량 요소로는 ①문제해결력 ②기획력 ③ Self-Leadership ④프리젠테이션과 실무운영능력 순으로 나타났음

□ 정책건의

인천시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인천시 교육훈련 목표의 구체화,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관리의 연계방안 모색 3)역량중심적 교육훈련체계 구축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교육훈련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 방향 모색을, 장기적으로는 직급별 공통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그림> 교육훈련 중점분야

	단기적 교육훈련 수요	계속적 교육훈련 수요	전략적 교육훈련 수요
3급 이상	동기부여, 권한위임 전문지식	목표설정, 위기갈등관리능력, 전략적 기획관리	
4-5급	조직원관리, 갈등관리, 전략적 기획력, 문제해결력	추진력	창의력 교육,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 리더십 교육
6급 이하	자기관리(리더십), 프리젠테이션, 기획력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력,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실무운영능력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작성 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1)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2)상시학습체제 운영과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의 제도화 3)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임. 특히,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계획과 연동시키는 방법과 목표관리제에 연동시키는 방법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

<그림> 업무추진계획과 교육훈련 수요의 연계 방안

일반 현황	조직, 정현원, 예산, 위원회 운영 등	
목표	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담당기관, 전화, 사업구분(주요업무시행계획, 지시사항, 공약사항, 주요현안사항, PM 사업, 기타)
	사업	전략적 방향, 전략과제, 사업개요, 성과지표,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기

		대효과
⇓		
대안 1	성과지표 이용	성과지표 내 업무 추진을 위한 팀내 교육훈련 목표지 포함. 성과지표에 관련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목표지를 포함시킬 경우, 각 목표별로 교육훈련 목표치가 제시되게 되어 교육훈련 계획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음.
대안 2	목표관리제 이용	성과지표와는 별도로 과장급 이상의 목표관리제 내에 부하직원 육성 부문 포함. 보직 이동시 목표 달성에 애로.

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1)교육훈련 인프라의 지속적 강화, 2)교육훈련기관의 대안적 운영방식의 도입 3)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4)과학적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제도화 5)Action Learning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 분석하여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하천오염 지표

수질오염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화학적 지표 중에서 하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부유물질량(SS: Suspended Solids), 용존산소량(DO: Dissolved Oxygen), 대장균군수, 각종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농도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하천의 수질오염 지표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나타내는 BOD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데 필요한 물속 산소량을 말한다. BOD가 높으면 유기물의 분해에 따라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 등이 살기 힘들고 부패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천의 경우 생활환경기준을 '매우 좋음' 등급부터 '매우 나쁨' 등급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하천이 '매우 나쁨' 등급의 수질일 때 BOD 수치는 10mg/ℓ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인천광역시 하천 및 도시관류를 대상으로 측정한 BOD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7년 기준으로 심곡천, 굴포천, 승기천, 학익배수구, 송현배수구, 서부간선수로, 나진포천 등은 '매우 나쁨' 등급의 수질에 해당하며 이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들은 도심지를 관류하고 있으며 도시화과정에서 급증한 생활하수 및 오·폐수의 유입에 따라 하천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반면 공촌천, 장·만수천, 장수천, 선행천, 내가천 등의 하천은 생활하수의 직접적인 유입이 적은 유역환경에 따라 BOD 측정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 좋음' 등급의 수질을 대부분 보이고 있다. 이는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천의 상당수 도심하천은 이와 같이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의 BOD 변화를 살펴볼 때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를 포함한 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확충, 하상 저질토 준설, 하천정화용수 유입, 하천내 오염물질 정화처리시설 설치, 수질측정망 확충 등의 수질보전 대책 시행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1〉 연도별 인천광역시 하천 및 도시관류 오염도 측정현황

(측정항목 : BOD, 단위 : mg/ℓ)

연도별 평균치	시천천	공촌천	굴포천	승기천	장·만 수천	학익 배수구	송현 배수구	서부간 선수로	장수천	선행천	내가천	나진 포천
1991	6.6	6.8	95.1	49.4	68.6	47.4	68.2	-	-	-	-	-
1992	7.4	6.9	81.4	56.7	58.0	44.0	67.0	-	-	-	-	-
1993	4.2	5.5	97.2	51.6	55.6	41.1	65.4	-	-	-	-	-
1994	4.2	7.9	71.5	48.2	66.2	37.4	57.1	-	-	-	-	-
1995	3.6	8.5	62.3	56.2	40.1	41.4	56.8	132.5	7.6	-	-	-
1996	6.1	14.2	61.8	52.0	41.3	42.4	61.6	121.8	18.5	-	-	-
1997	5.8	6.7	49.1	53.0	37.3	40.6	47.9	114.2	7.9	-	-	-
1998	4.6	6.6	29.2	33.1	18.2	32.3	32.3	69.6	6.5	-	-	-
1999	4.1	4.5	32.4	39.4	17.8	29.6	21.4	59.3	5.0	심곡천 52.6	-	-
2000	3.8	4.6	65.0	86.8	55.8	48.7	58.3	133.5	4.9	-	-	-
2001	3.4	3.5	70.6	66.6	60.2	55.5	50.2	120.3	3.5	선행천 2.5	13.9	-
2002	3.3	5.1	53.4	68.0	57.0	44.3	57.1	129.1	5.9	2.2	3.6	-
2003	심곡천 70.8	4.1	67.7	55.7	65.0	37.3	56.0	147.9	3.8	2.3	2.6	-
2004	심곡천 60.8	3.9	61.3	44.3	79.1	37.6	52.5	132.2	3.4	2.1	2.9	-
2005	심곡천 72.96	5.01	54.39	52.2	21.98	48.4	76.9	178.4	4.73	2.3	3.1	21.8
2006	심곡천 63.9	2.6	43.1	29.9	10.4	46.9	87.4	103.7	3.1	1.5	2.1	23.7
2007	심곡천 21.0	1.3	29.2	28.1	2.7	29.9	51.8	90.3	1.2	1.5	1.5	14.3

※ 2001년 내가천 및 선행천 측정망 지정, 2003년 심곡천 지정, 시천천 측정망 폐쇄

※ 자료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 주요 하천의 5등급 만족 하천수

인천시에는 규모가 큰 지정하천(직할, 지방1급)이 없고 소규모 지방2급 하천만 31개 흐르고 있으나 이중 14개 하천은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은 17개 정도이다. 가장 긴 하천은 부평구 청천동에서 발원하여 계양구 하야동으로 흐르는 유하거리 29.38km의 굴포천이며, 10km 이상 하천은 승기, 장수, 공촌, 검단천 정도이므로 하천의 규모치고는 아주 적은 소하천이다.

인천시내 도심하천의 수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질환경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부유 물질량 (mg/L)	등급별 수질과 수생태계 상태
매우 좋음	Ia	1 이하	25 이하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좋음	Ib	2 이하	25 이하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좋음	II	3 이하	25 이하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보통	III	5 이하	25 이하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나쁨	IV	8 이하	100 이하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쁨	V	10 이하	쓰레기 등 이 떠있지 아니할 것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매우 나쁨	VI	10 초과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수질기준은 크게 7개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산책 등의 여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의 수질기준은 5등급 정도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의 주요 9개 하천을 대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기준인 수질기준 5등급 만족을 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굴포, 승기, 장수, 공촌, 나진포천을 대상으로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속적인 오염원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은 물론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하천조성으로 환경의 경제적 가치창출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인천시 주요 9개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현황 및 2020년까지의 하천 관리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시 주요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농도

(단위 mg/ℓ)

구분	2005	2006	비고
삼곡천	73	63.9	도심하천

공촌천	5	2.6	도심하천
내가천	3.1	2.1	강화군하천
굴포천	54.4	43.1	도심하천
선행천	2.3	1.5	강화군하천
승기천	52.2	29.9	도심하천
장수천, 만수천	22	10.4	도심하천
장수천	4.7	3.1	도심하천
나전포천	21.8	23.7	도심하천

목표 연도별 5등급 만족 하천 수

목표년도	2010	2015	2020
5등급 만족 하천수	4	6	8

2006년 기준 5등급 만족 하천은 강화군내에 위치한 내가천, 선행천과 도심하천으로는 공촌천, 장수천으로 총4개 하천이며 2005년과 비교하여 2006년에 하천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5등급 만족 하천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는 규모가 큰 지정하천(직할, 지방1급)이 없고 소규모 지방2급 하천만 31개 흐르고 있으나 이중 14개 하천은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은 17개 정도이다.